

독자생존 갈림길...“제1야당 교체” “호남 30% 차지”

명운 걸린 바른미래·민주평화당 승리 전략 마련 부심

이번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창당 이후 첫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면 당세 확장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지만 패배한다면 정치적 존립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방선거 패배는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유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서울시장 등에 직접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바른미래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킨 뒤 이 바람을 호남과 영남으로 남하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또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전남도당 위원장 등 호남 중진들도 이번 지방선거 성적에 그들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뿌리였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들 대부분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탈당하거나 민주평화당에 입당하면서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대 만큼의 성적을 낼 것인지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5석 석권’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정당 지지를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 대안 야당으로서의 정당 정체성을 부각해 중도층뿐 아니라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는 것이다.

안철수 “직접 출마 불사”

바른미래 “광역 5석 목표”

민평당 “호남 일대일 구도”

대규모 당원 전원 워크숍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반(反)한국당, 비(非) 민주당”이라는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도 창당 후 첫 시험대가 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리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당 소속 의원 14명의 지역구가 몰려있는 호남에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당의 독자생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평당은 일단 대외적으로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두 곳 정도에서 승리하고 호남의 기초·광역의회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 호남 민심의 저변에서 민평당 바람이 불고있다고 여겨도 30% 이상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민평당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다는 자체 분석도 내놓고 있다. 후보만 잘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조배숙 대표는 최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한 일대일 구도를 자리매김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할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맨 왼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원내 4당으로서 한 석의 의석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현역 의원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민평당은 5일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 당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열고 정의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지방선거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투표용지 최대 9장 될수도

남은 일정과 달라진 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5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시작으로 지방선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또 지난 2일에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고 다음달 1일에는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5월22일부터 5일간은 거소투표자 신고를 받는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일을 20일 앞둔 5월 24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장에 돌입한다.

이들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1주일간 전원을 기다리는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6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6월8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받아볼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제주

6·1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 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월 13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120일 전부터
3월 2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4월 1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5월 24일 ~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5월 31일	선거기간 개시일(공식선거운동 시작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6일
5월 31일 ~ 6월 1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 기간 중
6월 1일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일 12일 전
6월 8일 ~ 9일	사전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6월 13일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선거일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10일 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특별자치도는 5장,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이날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기에 만약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유권자들은 최대 9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눈길을 끈다. 이는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최근 잇

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흑색선전(가짜뉴스)에 대한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선관위는 이미 내부에 ‘흑색선전전담 TF(테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페이스북·구글·카카오·네이버 등 14개 기관과 함께 5일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57명 등록

광주시장 3명·전남지사 1명...교육감 광주·전남 1명씩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등록자가 몰리는 등 입후보자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57명이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전남은 시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교육감 선거, 광역의회 예비후보등록자 등 등록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자는 지난 2월 13일부터,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및 기초단체장 입후보자는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군지역구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입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간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장 3명, 구청장

10명, 시의원 10명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고 전남도의 경우 광역단체장 1명, 시 지역 기초단체장은 광양·순천·나주지역에 5명, 광역의원 23명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한 1명씩 등록을 마쳤고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광주 서구갑은 2명, 영암·무안·신안은 1명의 후보가 예비후보자가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악력 | 전남대 지질학과 졸업,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